

# 본회, 창립29주년 기념 및 임시총회 이모저모

- 양돈협, 정관 개정 및 2007년 사업예산안 통과
- 폐사 최소화를 위한 양돈관련 세미나도 함께 열려



▲ 본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2월 19일(화) 대전 샤프그레이스 호텔에서 창립29주년 기념 및 임시총회 행사와 '돼지 폐사를 줄이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2월 19일(화) 대전 샤프그레이스 호텔에서 창립29주년 기념 및 임시총회 행사와 '돼지 폐사를 줄이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최영열 회장을 비롯해 김동환, 윤주성, 이병모 부회장과 각 도협의회장, 지부장 등 총 95명(위임 40명 포함시 135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정관개정승인(안), 2007년도 회비부과 기준승인(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창립 기념식 행사도 개최했다. 또한 '돼지 폐사 이렇게

줄이자'라는 주제로 안기홍 양돈컨설팅연구소장의 '폐사를 최소화하는 사양관리', 양형조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기획실장의 '2007년 양돈가격 전망', 농가폐사 극복사례 발표 등의 2007 양돈 세미나 등도 함께 개최되었다.

---

## 양돈인 단결하여 양돈산업 성장 발전 이룩해야

---

최영열 회장은 “지난 한해 협회가 우리 양돈인의 성원 속에 양돈산업 현안해결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양돈인들이 합



◀ 최영열 회장은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과 관련 “양돈인의 자발적 참여로 목표금액인 2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 여러분 등 전국 모든 양돈농가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돈협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창립기념식 행사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주성 부회장, 김동환 부회장, 최영열 회장, 김건태 명예회장, 정진섭 인천지부장, 조옥봉 대구지부장, 이병모 부회장

깨 지혜를 합치고 힘을 모은다면 국내 양돈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과 관련 “올해에도 이웃사랑 돼지고기 캠페인이 양돈인들의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양돈인의 자발적 참여로 목표금액인 2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 여러분 등 전국의 양돈농가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이 캠페인이 국내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큰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돈산업을 올바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

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모성 질환 극복 등 3대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

덧붙여 최영열 회장은 “우리 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소모성질환 극복, 국산돈육 차별화 라는 3대과제를 선정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현안해결과 양돈농가들의 권익 신장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창립 29주년을 제29회 창립기념행사를 통해 최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전국 각 지역의 양돈 지도자들은 향후 우리 협회와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 주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지도자의 책임과 동참을 강조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정선현 전무로부터 지부별 회비 납부 현황,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추진 현황, 한·미 FTA 100만인도별 총궐기대회 등 한·미 FTA 체결 반대 주요 활동,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1검정소 검정사 및 현장사무실 개축 사항, 제1검정소 신축 공사 추진 현황, 정관·규정정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문단 회의 등 최근 협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 회장 선거규정과 임원임기 개정 및 도협의회 기능 강화

이어 대의원들은 △제1호의안 정관개정승인(안) △제2호의안 2007년도 회비부과기준승인(안) △제3호의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상승인(안) △제4호의안 기타사항 등을 심의했다.

대의원들은 본회 정관이 1978년 제정된 이래 현재의 상황과 다소 상이한 내용이 있어 대한양돈 협회가 업무 확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및 정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설치된 정

관규정정비위원회가 검토한 회장 선거규정과 임원임기 개정 및 도협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회장 선거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임원선거규정’을 신설,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타단체 규정을 참고해 협회 실정에 맞게 수정토록 했다.

아울러 회장임기(3년)는 현행대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직원신분인 전무를 임원으로 제도화, 상근직 임원으로서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무이사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아 2년마다 능력평가를 통해 재선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그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됐다.

또한 각 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지자체 협력 사업은 물론 중앙회의 위임사업이 가능토록 기능을 추가하고 해당 도내 회원들에 의해 이뤄져 왔던 도협의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중앙회 대의원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 2007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원안 통과

또한 대의원들은 ▲FTA 비준에 대비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 ▲양돈산업 중심체로서의 협회 역할 강화, ▲양돈 자조금 효율적 관리 및 역할 증대 등 2007년도 중점 사업목표와 ▲농지법 개정 에 따른 해양배출 감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소모성 질병 피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분야별 특별대책위원회 운용 및 정책 대안 제시, ▲안전 돈육 생산을 위한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추진 확대, ▲항생제 사용 절감을 위한 지도 및 계도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

돈농가 현장 교육 사업 강화, ▲국내산 돈육 차별화를 위한 자조금 사업 효과 극대화, ▲1검정소 신축 공사 마무리 및 검정사업 안정화, ▲양돈농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양돈개발원 건립 사업 추진, ▲협회 전직원의 핵심 업무에 대한 전문화 추진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 협회 주요 핵심 사업 내용을 청취하고 지난해보다 2만원이 인상된 12만원의 2007년 회비부과 기준(안), 63억3천662만9천원의 200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서 최희태 전남도협의회장은 양돈업계가 보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도협

의회장은 계열화 사업 등을 통해 참여가 이뤄지면서 막대한 자본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갖출 경우 전업농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중소기업, 농가의 유일한 생업수단 침해는 물론 젊은 인력의 농촌이탈과 함께 대기업의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일희 이사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 처리문제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소각, 매몰로 한정되어 있는 폐사축 처리에 퇴비장 발효법 등도 추가해 현실적인 폐사축 처리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 〈세 미 나〉

### 돼지 폐사 이렇게 줄이자 세미나 개최



한편 양돈협회는 돼지 폐사로 인한 생산성 악화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양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양돈타임스와 공동으로 '돼지 폐사 이렇게 줄이자' 양돈세미나가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기홍 양돈컨설팅연구소장의 '폐사를 최소화하는 사양관리', 양형조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기획실장의 '2007년 양돈가격전망', 농가폐사 극복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 ◎ 내년에도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지속될 듯

이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양형조 실장은 2007년도 국내외 양돈업 전망을 통해 내년도에는,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실장은 산자수가 2004년도에 9.20두에서 2006년도에 8.75두로 지속 감소했고, 육성률과 모돈회전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내년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경기부진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부정적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긍정적인 이유로 대통령 선거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도 출하두수를 올해와 생산여건이 동일할 경우 1천286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급률은 '05년 83.7%에서 '06년 76.4%, '07년 75.3%로 추정했다. **양돈**